



안녕하세요? 허한나 전도사입니다.

1. 한나전도사님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배화의 새 식구가 된 허한나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딸로 태어나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20년을 살다가, 대학에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 지극히 평범한 모태신앙입니다. 20대 내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다가, 결국 20대 끝자락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결국에는 전도사가 되어(?)버린 선교사 꿈나무입니다.

2. 배화교회 첫인상은요?

작년, 재작년 부모님께서 연이어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한 심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2019년 하반기는 사역도 교회도 학업도 일도 다 멈추고 침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송민혜 전도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전도사님의 권유로 배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 이긴 하지만 그 첫 주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고, 또 처음 참석했던 속회 모임도 인상깊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속회일원

이었던 것처럼 너무 과한 친절로 인한 부담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로 선을 긋는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 너무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는 '와 목사님, 사모님도 계신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다!' 결정했습니다. 선교단체를 떠난 이후 쪽 교회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가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각자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서로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3. 전도사님이 꿈꾸는 초등부는요?

교회 안에서 자라났지만 어른이 되고서야 만난 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관심이 아주 많은 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대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면 되겠지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영혼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내리는 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새롭게 세워질 초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언제나 즐거운 초등부, 매주 새롭게 알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나고 좋아서 매일 매일 교회에 가고 싶은 초등부가 되길, 그리고 매주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는 전도사가 되길 기도해주세요.

배화교회

주보 제 2019-51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12.22

강림절 제4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회 중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함께 :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기뻐하며 경배하세 / 이 땅 위에 오신

대표기도 조진철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미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에스겔 34장 1-6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에스겔 34장 1-6절,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흠어지고 흠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흠어졌도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 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김영석 목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시다

파송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1명
헌금	십 일 조 강영건 최인성 감사헌금 권태성 이동근 이은미 주일헌금 김백준 김선아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김은철 김재홍 김선민 김택운 김택현 박세연 박 준 박진성 서민욱 이아름 서하랑 서하나 송민천 김미소 임대혁 임아인 정우석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

2019 강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

powder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파우더 향초에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대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번째 가정예배]

2019. 12. 23 ~ 24

- 성탄선물** 권태성 집사님이 초등부, 유치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진을 못찍으신 분들은 오늘 촬영해주시면 완성해드립니다.
- 성탄절예배** 25일 11시, 성례전(유아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성탄예배를 드립니다.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는 지역별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밤 11시, 모두 온라인으로 만나요!
- 교육부소식** 다음 주일, 유치부와 초등부가 졸업 및 입학 환영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 새가족환영** 10월에 태어난 임주안 양(임경훈, 주영, 임주하 성도 가정)이 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주안이와 주안이 가족을 축복해주세요.
- 사역자파송** 3년 동안 함께 지내 온 조 회 청년은 내년부터 장위교회에서, 김수현 권 사님은 다음 주부터 만리현 교회에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 장례소식** 지난 주일 저녁, 조영남 집사의 모친되시는 이명자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5속(식만사),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성탄절 유아세례

부모교육 12/15, 22 (2회)

유아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 결단과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송구영신예배 & 포트락파티

12.31. 연합가정예배

송구영신예배는 한해의 마지막시간과 새해의 첫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웃(성도)과 함께 기쁨의 예배와 사랑의 교제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